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2호 [루계 제23004호] 주제99 (2010)년 2월 21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아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최통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
지, 리제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
서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1년만에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영광을 지닌
황철의로동계급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
에 넘쳐있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대변혁
의 해로 빛내일 드높은 결의를 안고 충천
한 기세로 충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황해제
철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
례없는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 있다.

황철의로동계급은 지난해 3월 기업
소에 찾아오시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22만kVA변전소
건설을 비롯한 개건 및 능력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철강재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
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꾸려진 생산
종합조종실과 100t초고전력전기로,
현속조피장, 황철변전소를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
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100t초고전력전기로 앞에서 출강작업
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시면서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용해공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
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형전기로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주체의 쇠물폭포를
보시고 기업소의로동계급이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대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능력이 큰 현대적인 주체
철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려 강철생산을

원료원천에 의거하고 있는 무연탄가스화
와 비콕스화는 우리 경제발전의 철학이라
고 하시면서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체득한 이 귀중한 전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철의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1년사이에 생산공
정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 생산
을 끊임없이 늘이고 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시
기 숨져 가던 황철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안고 억척같이 일떠선로동계급의 혼신
적인 투쟁에 위하여 되살아났을뿐아니
라 오늘은 통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했
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전변은 선군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만난을 해쳐감으로써 철생
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구호인 자력갱생이야말로 사회주의건설
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는 열쇠이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필승의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
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
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금속공업을 발전시
켜야 기계제작공업과 기본건설의 장성
을 보장할수 있고 인민경제의 전반적발
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
시면서 금속공업부문이 대고조의 전군
속도를 최대로 높여 경제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하는 밀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계속



부단히 늘이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인 주체
철성공은 우리 당이 내세운 금속공업의
주체화로 선의 자랑찬 승리이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공업발전
에 기여하신 불멸의 공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립적이며 현대적

인 금속공업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는 또한 금속
공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때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
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황 해 제 철련 합 기업 소를 현지 지도 하시였다



1. 면 적 체 적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파업은 뿐만 아니라
꾸려진 주체철생산기지에 의거하여 철강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이
라고 지적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철생산율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
술개선에 계속 깊은 관심을 들여야 한다
고 하시면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
키고 자체의 기술개발 능력, 제품개발 능

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천대화, 파

학회를 전망성있게 진행함으로써 원료의 소비기준을 극력 낮추고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

를 개선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소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면판기업
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아그로·단지형 박람회와 전시·판매부

에서 전력과 철정왕, 석판을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의 한길로 뻔개같이 내닫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지도일군들의 최대한의
지휘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일꾼들이 50년대, 60년대

의 일군들의 투쟁기록으로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통
나고 빠져나온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대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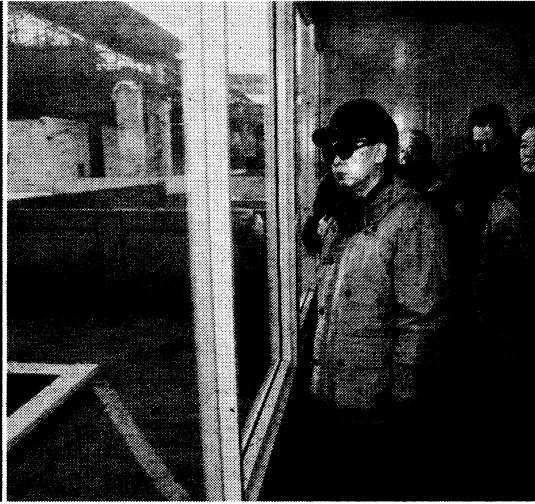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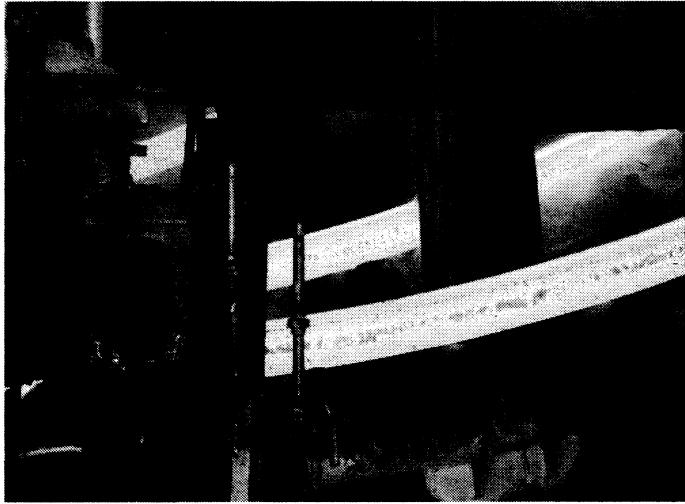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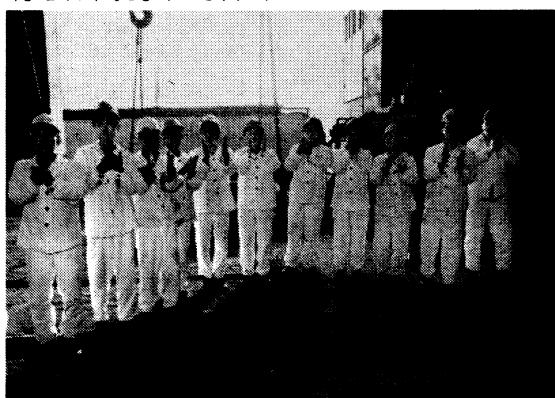
이 있는 일군, 난판을 파감히 예치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위대한 철학자국면이 엘리고
황철동지를계에 대한 당시의 조
크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존엄한 혁명의 주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물론 정치사업이라고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표시를 언제나 고다져온 불굴의 정신력을 대고조의 전렬에서 질풍같이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同志께서는 활화재제제의
로동계급은 활화재제제소가 경제발전에서
한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기고 언제나 절로 당을 받들어
적으로 계급이라고 하시면서 김
설에서 조선사람의 본때를 그 성신, 그 백년으로 강성화
을 열기 위한 최후를 격전에서
승리자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
을 표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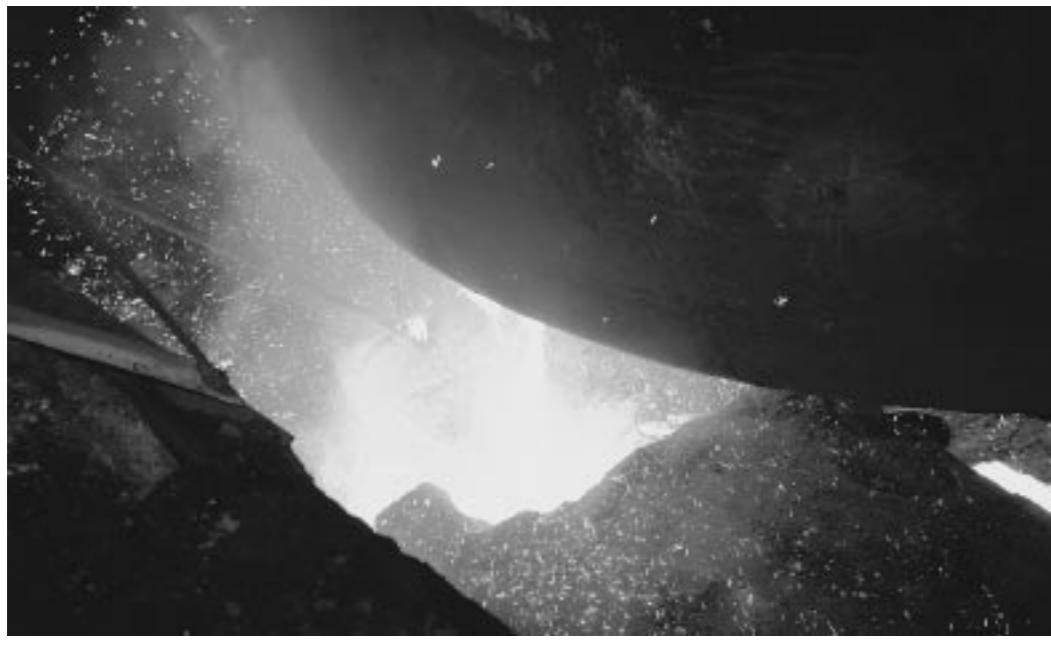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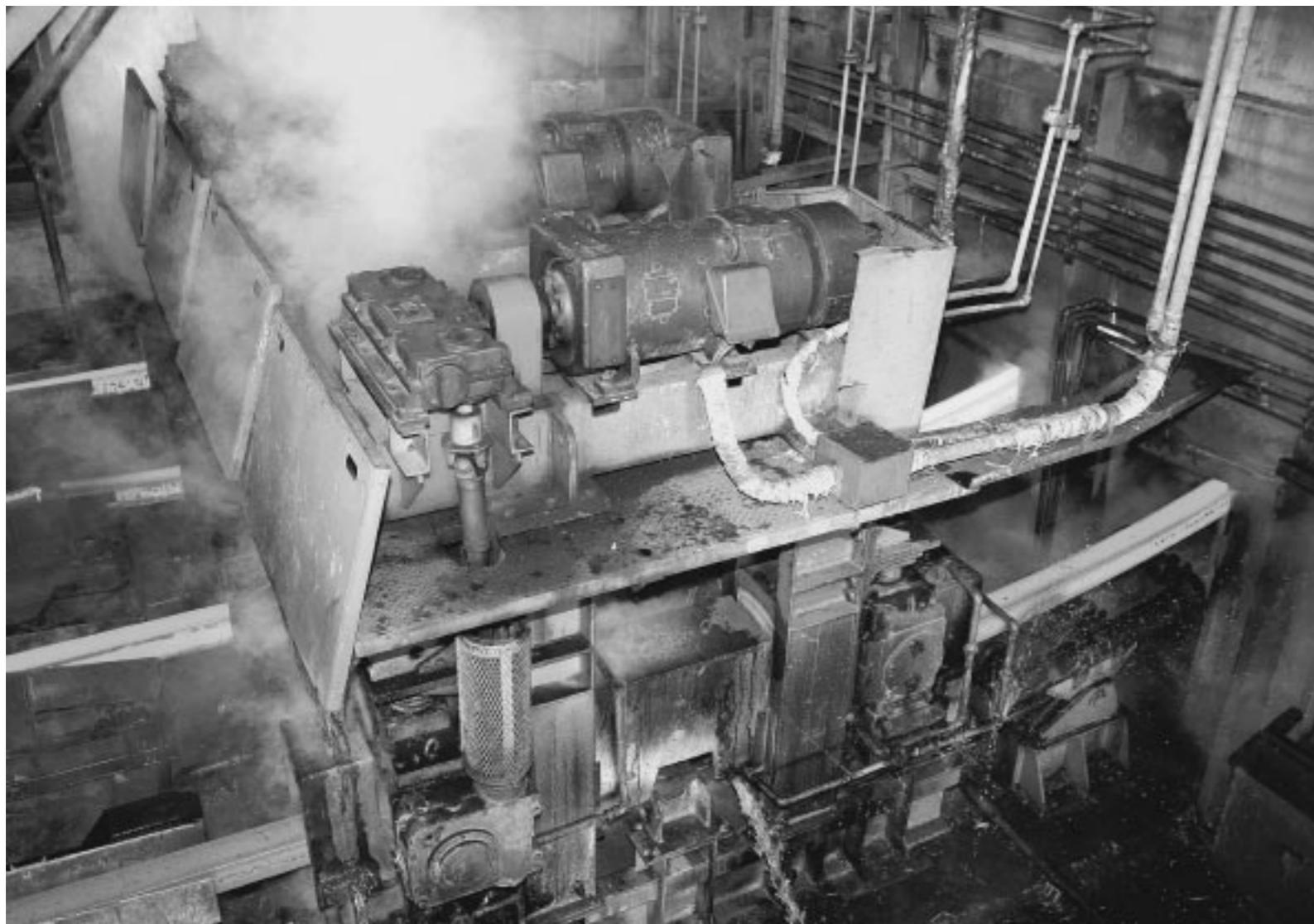
황제에 철련할 기업주의의 전통
근로자들은 강성대국건설 위업
리 실현 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헌신
또다시 찾으오시여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도움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겸무적과
관찰함으로써 강성대국의 평화
의 물은 키를 선함으로 휘날리며
곁의에 넘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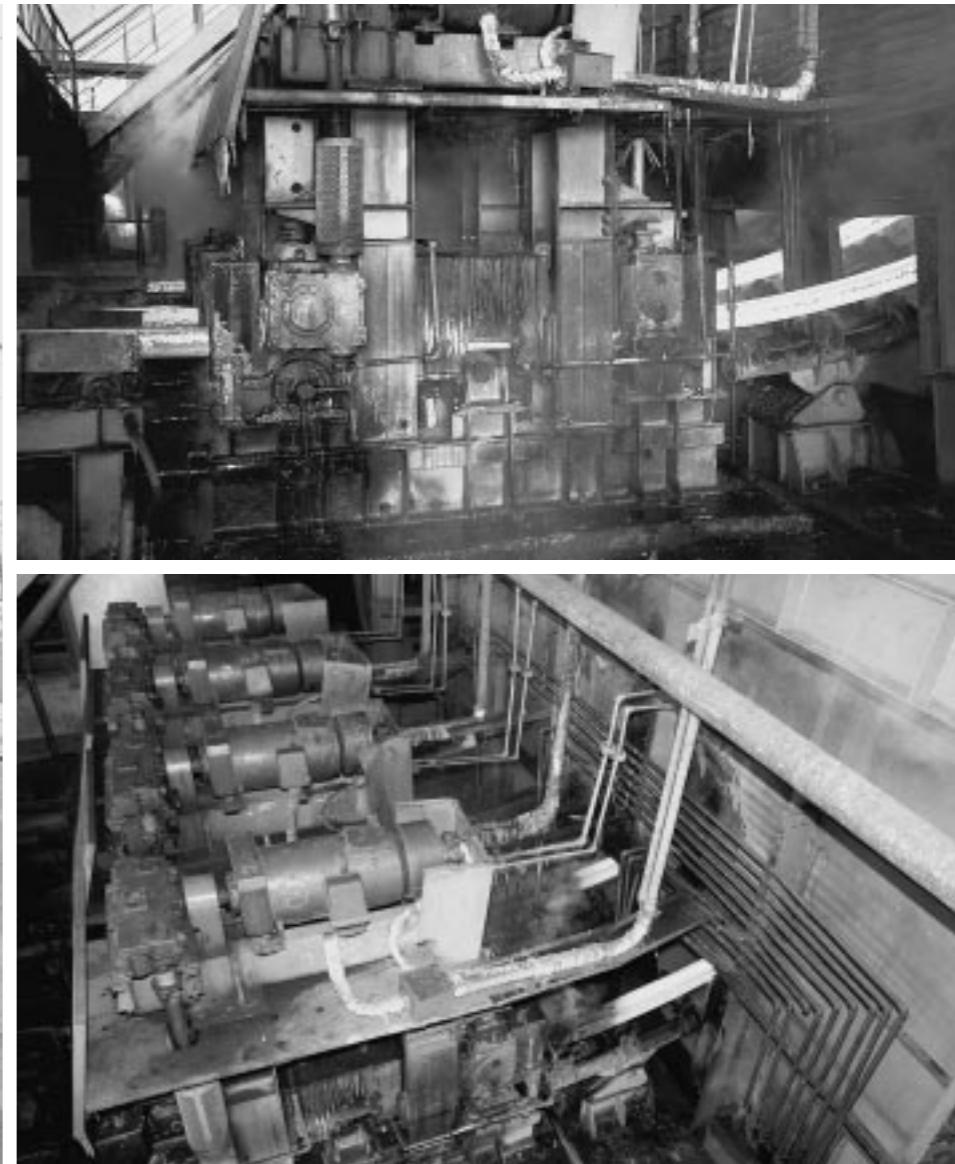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예려나라인사들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하바롭스키시장, 《마크》유한책임회사 사장, 폐름시 《쏘우즈 스프로이》유한책임회사 사장, 수리아 라파끼야도 상공업 및 부동산투자회사 사장, 베히고 오아하까주 장관, 오아하까시 전시장, 오아

하까청소년배구팀 대표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들이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전달되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617호

평안북도 동립군과 자강도 우시군에
《국토환경보호모범군》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열렬한 애국심과 향토애를 지니고 국토관리사업을 전군종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는데서 모범인 평안북도 동립군과 자강도 우시군에 《국토환경보호모범군》 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주제 99 (2010) 년 2 월 9 일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마쓰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2. 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으시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기술

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비날론솜은 목화솜이나 양털로 못지 않는 훌륭한 방직 원료라고 지적하였다.

그이께서는 비날론대량생산의 시작은 조선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서 온 나라의 대경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날론과 함께 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

으로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가극

을 창조한 테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창작성과 최신과학 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비날론 공장을 일떠세워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은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대변혁의 해로 빛내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자고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대변혁의 해로 빛내임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자고 조선인민에게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비날론은 목화솜이나 양털로 못지 않는 훌륭한 방직 원료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원균명 청 평양음악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새 세기의 혁신적인 인목과

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으로 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가극

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신 소식, 거국 《에브게니 오네긴》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로씨야의 소리방송과 인터넷통신들인 《가제파, 루》, 《브즈글라드》, 라오스통신, 케스族自治州 사상연구 및 구현조조와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보도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원탁부 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중국의 《인민일보》, 《신화제일전신》, 《해방군보》, 《광명일보》,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타이신문 《방코코포스트》, 싱가포르TV방송이 전하였다.

본사기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 군중대회 진행

평안남도 군중대회에서 리체인

당중앙위원회 책임임무를

부강조국의 초석이 되라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을 보고

진주보석은 어디에서도 숨결한 그 빛을 잃지 않으며 그 굳음을 변 치 않는다.

거대한 호수로 전변된 금강강의 홍봉언제를 목록히 떠받들고 있는 억년 드는지 않는 초석이 되어 언제의 깊은 호수밀에서 빛을 뿐리는 돌격대원들의 위훈의 발자국...

우리는 한편의 영광에서 대자연을 품으며 금강강반우에 행복의 무 풍도원을 일며 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의 미더운 모습, 이를다운 진주보석으로 새겨져 빛나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깊은 향심의 자자자옥을 보고 있다.

그들은 시대와 조국앞에 어떤 고귀한 이름을 남겨 그리도 멋진 한 것이며 어떤 승리로 리상을 끌어올리 청춘을 빛내인 것인가?

최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금강강봉천성발전소를 일며 세운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영화학 조세혁, 연출 김현철)을 만들어 내놓았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선군시대 인간들이 서 이어 할 흔의 자리를 깨우쳐 주고 청년의 깊은 리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영화는 우리 인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청년들의 찮다운 리상은 루전속에 있고 투쟁속에서 꽂펴날 수 있다.』

리상은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매 인간에게 있어서 리상은 미래의 자기자신을 들어다보는 거울과 같기때문이다.

인생의 향유를 청년시절에 자기의 포부와 리상을 현실로 꽂아온 청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려온 청춘이며 행복한 짐의 향유자들인 것이다.

네온들이 번쩍거리는 화려한 유보도보다 진흙길, 천눈길을 더 많이 걷고 향유하는 말보다 의무와 창조, 투쟁이라는 말을 더 사랑한 영화의 주인공들.

돌격대지휘관들이 진육과 정민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과 고향으로 가 아니라 금진강홍봉천성발전소 건설장으로 자진하여 달려온 제대원들이었다.

군사복무를 마친 진육의 앞에는 대학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상업대학 학통지서를 품에 간직하고 주저없이 돌격대제복을 입었고 발전소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구간인 중심강토전투장을으로 달려갔다.

하나니, 처녀는 왜 발전소건설장으로 왔으며 어떤 승고한 리상이 그의 발걸음을 부강조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초소로 떠밀어준것인가?

진육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대학 입학시험에서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평양으로 향한 길에서 잠간 만났던 한 제대병사의 간절한 부탁과 남원이 있었다.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넘으신 철령길에 피었던 철족꽃을 환원된 금진강홍봉천성발전소 언제에 더 활짝 피우겠다고 어린 꽃나무를 암고 발전소로 원원해 가던 제대병사, 그는 바로 대대장 정민의 누이동생이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는 소나기 구원하고 청진된 제대병사가 날진 꽃나무배를 정지하고 암고 꽃다운 그의 생을 잊기 위해 스스로 돌격대원이 된 주인공 진육.

그는 대학으로 등을 떠나는 사람들의 고마운 헌신과 꽂아마다하고 발전소건설장에 계속 남아 일하던 그에 줄줄을 돌격대지휘관들에게 절침히 부탁한다.

일신의 명예, 개인적리상과 향락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육이와 같은 청년들이 스스로 내린 결심이 한 번하고 흘룡한 것인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선군시대 청년들이 지닌 지향과 포부는 그 어느때보다 송고하고 높아 있다. 인민군에서 선군혁명의 창조로 전위투사로 단련육성된 제대군인들은 그 어떤 사회적우대나 혜택

이 아니라 당파 수령, 조국과 민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려는 깨끗한 충정과 현신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영화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난 고결하고 이를다운 정신세계를 구적인 사설속에서 깨끗하게 철쳐보이고 있다. 개인의 리상과 행복, 향유의 권리보다 더 없이 귀중하고 소유의 향심을 재는 기준점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소.』

우리가 가지는 언제에 0.001%라도 흐린 미움이 쉬어서는 안된다는 정민의 이 절절한 말에서 진육은 커다란 충격과 향심의 가치를 받아안게 된다.

이 일을 놓고 재석이바이는 애굽은 것을 영화는 끝까지 밝혀주고 있다. 영화가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은 또한 인간이 헌생을 살면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으로 간직으로 활할 것이다.

인생을 후회없이 멋진하게 사는 인간에게는 이생을 깨끗한 축구에서 진육은 커다란 충격과 향심의 가치를 받아안게 된다.

그는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자기가 받은 수많은 환장을 부리워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을 다정히 일깨워준다.

영화는 이러한 화폭들을 통하여 위인의 자랑보다 더 값있고 소중한 것이 누가 보건 달건 똑똑히 차지하는 인간의 깨끗한 향심이며 순결하고 고결한 헌신의 마음을 네지 때 누구나 어머니조국과 시대에 후회없이 멋진하게 나설수 있다는 것을 확신히 하고 있다.

그들의 투쟁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군인정신의 힘에 어떤 개인을 끌어들여 고개를 하고 있다. 영화는 제대군인들의 몸에 푹 배인 군인기질과 일본세를 따라배울 때 우리앞에 짜증이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고 절명 못할 목표란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서로의 사랑을 약속한 진육과 정민은 결혼식 날 수수한 돌격대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앞에 나서는 것을 더없이 멋очно하고 영어로운 일로 여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영원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영화에서 대대장 정민과 소대의 오랜 구대원인 제식아바이가 바로그런 사람이다. 진입대원소대가 인간의 힘과 기계의 힘을 겨루는 진흙상자전투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모두가 끝에 끌려들었을 때 부리운 진흙을 언제에서 다시 몽땅 걸어내야 하는 뜻밖의 정황이 발생한다.

진흙속에 석비례성분이 섞이여

이 아름다운 진흙을 통해 기꺼이 깊은 곳에서도 그 빛과 윤기를 변지 않는 진주보석,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의 진주보석을 안고 살아야 한다.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놓은 조국보다 끼워드는 국의 부상을 위해 바치는 이 나라 청춘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조국의 만년전제를 떠받드는 초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민족과 청년들에게 고무적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인식 교양의 의의이다.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이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은 또한 선군시대 청년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힘은 무엇이며

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벼찬 시대에 깨끗한 헌신으로 조국을 목숨히 뱉어들어가는 청년들을 시대의 진주보석으로 빛내여 주시는 위대한 어버이품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파 수령, 조국과 민민의 부름이라면 어떤 어려운 곳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산간을 끊고 바다도 대원들의 비상한 투쟁정신과 강의한 노력은 기어이 금진강반우에 행복의 무로동력을 펼쳐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가 산다는 인생판을 암고 산 제대군인 청년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살게 하여주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승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청춘은 개인의 리상과 행복, 향유의 권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 블라는 경쟁과 지혜를 아낌없이 밝고 창창한 것이다.

창으로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아름다움은 개인의 리상과 행복, 향유의 권리에 있는것이 아니라 부강조국건설의 원대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 블라는 경쟁과 지혜를 아낌없이 밝고 창창한 것이다.

금진강의 『진주보석』인간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두렵한 삶의 자율을 새기려는 불타는 열망을 지닌 우리 동시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대가 선군시대 청년이라면 금진강의 『진주보석』을처럼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부강조국을 떠나고 투쟁하는 땅의 초석, 신념의 초석, 애국의 초석이 되라. 강성대국건설사에 고귀한 이름을 남기라.

리수정



생활을 보살피시기 위해 황해북도 토산방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다.

뜨거운 눈물이 없이는 볼수 없는 소설의 이 마지막장면에 형상된 감동깊은 세부를 통하여 작품은 오늘 우리 민족이 한껏 누려가는 행복에 이루어진 것이다.

1948년초에는 벌써 산업부 흥국이 마련되고 민족생활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이 땅에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조국땅 어디에서나 행복의 노래 소리가 넘쳐나 전 만민에게 펴워지는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아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신다.

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온 투쟁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군인정신의 힘에 어떤 개인을 끌어들이 깨닫게 하고 있다.

영화는 제대군인들의 몸에 푹 배인 군인기질과 일본세를 따라배울 때 우리앞에 짜증이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고 절명 못할 목표란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발전소건설의 나날에 서로의 사랑을 약속한 진육과 정민은 결혼식 날 수수한 돌격대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앞에 나서는 것을 더없이 멋ечно하고 영어로운 일로 여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영원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영화에서 대대장 정민과 소대의 오랜 구대원인 제식아바이가 바로그런 사람이다. 진입대원소대가 인간의 힘과 기계의 힘을 겨루는 진흙상자전투에서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 모두가 끝에 끌려들었을 때 부리운 진흙을 언제에서 다시 몽땅 걸어내야 하는 뜻밖의 정황이 발생한다.

진흙속에 석비례성분이 섞이여

이 아름다운 진흙을 통해 기꺼이 깊은 곳에서도 그 빛과 윤기를 변지 않는 진주보석, 사람은 누구나 이런 마음의 진주보석을 안고 살아야 한다.

나서자란 고향과 조국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놓은 조국보다 끼워드는 국의 부상을 위해 바치는 이 나라 청춘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조국의 만년전제를 떠받드는 초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민족과 청년들에게 고무적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인식 교양의 의의이다.

예술영화 『시대가 주는 이름』이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은 또한 선군시대 청년들이 지닌 사상정신적 힘은 무엇이며

이러한 통소는 민족수난의 시기 일제에 의하여 빚을 끊어졌다. 우리 민족의 얼을 빼앗기 위해 미쳐 날뛴 일제는 통소를 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불온사상』이 퍼진다고 하면서 불지고 끝까지 펼쳐졌다.

그러나 우리 민족들, 특히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으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의 힘을 키운다. 조국을 떠나고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조국땅 어디에서나 행복의 노래 소리가 넘쳐나 전 만민에게 펴워지는 조국땅 방방곡곡으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우리가 고집하는 민족기적은 『진주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다. 그대가 선군시대 청년이라면 금진강의 『진주보석』을처럼 조국을 떠나고 투쟁하는 땅의 초석, 신념의 초석, 애국의 초석이 되라. 강성대국건설사에 고귀한 이름을 남기라.

리수정

생활을 보살피시기 위해 황해

북도 토산방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신다.

뜨거운 눈물이 없이는 볼수

없는 소설의 이 마지막장면에

형상된 감동깊은 세부를 통하여 투쟁을 위한 투쟁이 세차례 벌어진다.

1948년초에는 벌써 산업부 흥국이 마련되고 민족생활이 펼쳐졌다.

이제는 청춘의 힘을 키우고 힘차게 펼쳐졌다.

우리가 고집하는 민족기적은 『진주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 힘차게 펼쳐졌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간고한 투쟁정신과 불굴의 투쟁속에서 투쟁시기는 삶과 희생으로 투쟁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풀피우기 위한 성령을 이끌고